

Korean Open Statistics with GNU R Conference에 보내는 메시지

첫 한국 R 사용자 컨퍼런스에 연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 1990 년경 Ross Ihaka, Robert Gentleman이 처음 구상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R은 큰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. R의 계속된 **활력/역동성의 (이에 대해 본인의 공로는 없습니다만)** 원인 중 하나는 R의 국제화에 대한 R 코어 팀의 지원입니다. 그래서 특히 유럽, 북미, 영어권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곳에서 튼튼한 R 사용자 **그룹**들의 탄생에 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.

R의 급속성장의 지표로써 지난 10년 동안 R 패키지 아카이브 CRAN 상의 R 패키지 수를 보여주면 그래프를 첨부합니다. 이 도표는 제가 2009년 R Journal에 실은 통계적 **컴퓨팅/계산** R 프로젝트의 사회 조직과 궤적 (Social Organization and Trajectory of the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)에 대한 논문입니다. 보시다시피 CRAN에서의 패키지 수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
제 Rcmdr ("R 커맨더") 패키지의 **계속된**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을 부탁 받았습니다. Rcmdr는 본디 R을 위한 간단하고,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**기본 통계 시각적** UI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패키지였지만 현재 상당히 발전한 형태를 취합니다. 예를 들어 선형 (linear), 일반화된 선형 (generalized linear) 등 보통 **사용되는/적용하는** 선형회귀모형 (linear regression model)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 R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 중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. 다만 그 일부는 현재 CRAN 상의 30개의 R Commander 플러그인 패키지를 통해 확장됩니다.

기본 R tcltk 패키지를 통해 구현된 R Commander 인터페이스에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. 하지만 **주기적으로** 인터페이스를 상향하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, 최신 버전의 R Commander는 **대화창들이 자신의 상태를 기억장치가/기억하는 기능이** 내장되어있고 이를 사용하면 R Commander **대화들을** 재작성하고 있습니다.

R의 표준 국제화 기관을 사용하는 R Commander가 여러 언어, 특히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R과 연결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보다 R Commander 같은 시각화된 UI가 상급 사용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R 등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사람들간의 협동이 무엇을 실현 가능케 하는지에 대한 인증입니다. 컨퍼런스가 성공적이고 미래에 있을 여러 국내 컨퍼런스의 선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또 연간 useR!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R user들이 더욱 증가하기를 기대합니다.

캐나다에서 안부를 여쭙니다.

John Fox
Senator William McMaster
Professor of Social Statistics
Department of Sociology
McMaster University
Hamilton, Ontario, Canada